

공업진흥청 상품 테스트



■ 5인치 흑백 TV ■ 망간 건전지 ■ 여행용 가방



소형화 추세에 발 맞추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5인치 흑백 TV. 휴대용 전기 기기의 개발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망간 건전지. 여행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행용 가방.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들 3개 품목의
시험 결과를 알아본다.



5인치 흑백TV

'아남'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시청이 가능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저렴하여
수요가 늘고 있는 5인치 흑백 TV.
공업진흥청이 89년 11월
시중에 판매중인 5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품질이
대체로 비슷했으나 아남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 전자 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 추세에 따라 개발된 5인치 TV.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시청이 가능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소형 TV보다 저렴한 장점 때문에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업진흥청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국산품 5개 제품을 구입하여 품질 비교 평가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각 업체별·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했고, 아남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양' 제품이 수신 주파수 범위 좁고,
'크라운' '코스모스' 제품이 화면 크기 부적정해**

TV는 내부에서 높은 전압이 발생하고 X선이 방출되므로 일반 전기 제품보다 전기적인 안정성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전기 상식이 없는 소비자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TV 금속부분 등에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의 감전 여부, TV 브라운

관에서 발생하는 X선의 유해 정도를 알아본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TV는 넓은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수신할수록 많은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홍양 제품은 채널 2~69까지 밖에 수신할 수 없어 미흡했고, 다른 제품은 채널 2~83까지 수신할 수 있었다.

전원 스위치를 넣었을 때, 전압에 변동이 있으면 화면이 넓게 보이거나 무늬가 나오는 등 마치 화면 조정이 잘 안 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전압 변압에 따라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알아본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양호했다.

또한 화면 크기가 브라운관 내에 적당하게 나타나야 한다. 화면 중앙의 가로 세로 비를 산출해 본 결과, 크라운 제품과 코스모스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가로 세로의 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시청할 때 화면 내의 건물 벽이나 창문이 찌그러지거나 건물 전체가 뺄어져 보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동일트레이딩 제품은 수직 휨이 심하고, 크라운 제품은 수평 휨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공업진흥청)

평가 항목	외관 및 구조	안전성		일반적 성능						전기적 성능										환경 성능				구입 가격 (원)																																																																																																																																																																																																																																																																																																																																																																																																																																																																																																																																																																																																																																																																																																																																																																																																																																																																																																																																																																																																																																																																																																																																																																																																																																																																																																																																																																																																																																																																																								
				수신 주파수 범위	전압 변동에 의한 동작 성능	화면 크기 (수직·수평)의 적정성	화상 의 기하학적 왜곡	연속 동작	감도		중간주파 방해 비		이미지주파 방해 비		음성 출력	음성 출력	잔류 잡음 (HUM)	소음 (표시치의 차)	내열성	내습성	내진성																																																																																																																																																																																																																																																																																																																																																																																																																																																																																																																																																																																																																																																																																																																																																																																																																																																																																																																																																																																																																																																																																																																																																																																																																																																																																																																																																																																																																																																																																											
		절	절						V	U	V	U	V	U																																																																																																																																																																																																																																																																																																																																																																																																																																																																																																																																																																																																																																																																																																																																																																																																																																																																																																																																																																																																																																																																																																																																																																																																																																																																																																																																																																																																																																																																																																		
		연선	연선						H	U	H	U	H	U								성출	성출		성출	성출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조항																																																																																																																																																																																																																																																																																																																																																																																																																																																																																																																																																																																																																																																																																																																																																																																																																																																																																																																																																																																																																																																																																																																																																																																																																																																																																																																																																																																																																																																																																												
업체명	모델명																																																																																																																																																																																																																																																																																																																																																																																																																																																																																																																																																																																																																																																																																																																																																																																																																																																																																																																																																																																																																																																																																																																																																																																																																																																																																																																																																																																																																																																																																																															

감도가 나쁘면 방송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높은 산 또는 건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수신 전파가 약하게 되어 TV 화면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 VHF 채널은 다른 제품은 모두 15.5dB 이하인데, 동일트레이딩 제품과 홍양 제품은 20dB을 초과해 약간 미흡했다. UHF 채널은 다른 제품은 모두 25dB 이하인데 홍양 제품은 27~29dB로 나타나 다른 제품보다 감도가 약간 미흡했다.

‘아남’ ‘크라운’ 제품이 잔류 잡음 적고,
‘홍양’ 제품이 음성 출력 우수해

TV 수상기 근처에서 전동 미싱, 전자 레인지, 믹서 등을 사용하거나 비행기가 지나치면 TV 화면에 눈이 내리는 스노우 현상이나 줄 무늬가 나타나는 등 화면에 이상이 생긴다.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를 배제하고 본래의 수신 전파를 잘 보호해야 양호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VHF 채널은 크라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미흡했고, UHF 채널은 홍양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에서 앰프가 음성 신호를 증폭할 때, 원래의 음성 신호 성분에 불필요한 신호를 적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동일트레이딩 제품은 3.24% 이상의 불필요한 신호 성분을 포함시켜 다른 제품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성 출력은 홍양 제품이 1.5W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제품보다 우수했다.

TV 음량을 최소로 한 다음 전원 스위치를 켜면, 쏘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잔류 잡음이다. 시험 결과 아남, 크라운 제품이 잔류 잡음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 전력 표시의 정확성을 알아본 시험에서는 표시치가 대체로 10% 이내의 차를 나타내 양호했으나, 동일트레이딩 제품은 전력 표시가 돼 있지 않아 미흡했다.

TV는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에도 이상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온도 변화, 습기 등의 영향으로 사용상 지장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모든 제품이 환경 변화에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동일트레이딩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 미흡했다. **소**

망간 건전지

국산품이 수입품보다 우수



휴대용 소형 전기 제품의 끊임없는 개발로 건전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건전지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망간 건전지의 경우에는 국산 제품은 물론 수입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업진흥청이 89년 12월 국내외 4개 제품을 비교·시험한 결과, 국산품이 수입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전기 기기의 발달과 함께 필

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건전지. 전지는 물질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에 의하여 방출되는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전지는 한번 쓰기도 제 성능을 다시 회복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크기가 크고 무겁다. 그러나 건전지는 한번 쓰고 나면 제 성능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에 편리하다.

건전지에는 망간 건전지, 알칼리 망간 건전지, 수은 건전지, 산화은 건전지 등이 있는데 알칼리 망간

건전지는 원통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라디오·사진기용 플래시·휴대용 전등 등에 사용되고 있다. 산화은 및 수은 건전지는 일반적으로 단추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포켓용 계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망간 건전지는 알칼리 망간 건전지에 비해 사용 시간이 짧은 반면에 가격이 싼 이점이 있다. 또한 건전지 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 생산도 되고 있지만 수입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

제조된 지 오래 되는 수입품은 지속 시간이나 전압이 떨어져 불량할 수도 있어

시중에 유통중인 국내 제품과 수입품 4개 제품을 비교·시험한 결과 국내 제품이 수입품보다 지속 시간, 내수액성 등이 우수하거나 비슷하였다. 따라서 수입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막연한 판단은 불식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수입품은 제조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된 만큼 전기가 방전되어 지속 시간이나 전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건전지의 겉모양은 모든 제품에서 이물, 오염, 흠집 등 변형이 없었고 제조 연월일 등과 같은 표시도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건전지에 사용된 +극, -극이라고 하는 단자는 기기와 계속적으로 양호한 전기적 접촉이 될 수 있는 금속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용상 지장이 생기는 녹 및 변형이 있는 재료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다.

건전지는 치수가 맞지 않으면 다 쓴 건전지를 교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기기도 작동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제품보다도 치수가 정확해야 한다. 각 제품의 지름 및 높이는 모든 제품이 KS 기준에 적합했다.

처음 건전지를 구입했을 때 전압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기기에 무리를 주어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건전지에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각 제품의 초기 전압을 알아보았더니 모든 제품이 KS 기준에 적합했다.

홍콩제 '바이닉' 건전지가 누액이 생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지는 사용하게 되면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사용 제품에 일정한 저항 부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기를 소모하면서도 제힘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은 제품이라 말할 수 있다. 건전지에 부하 저항 10Ω을 접속하여 매일 30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몇분간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모든 제품

망간 건전지 종합 평가표

(자료: 공업진흥청)

시험 항목	결 과	단 치 수	개 지 내 누	로 속 시 액 성	전 방 과 고	압 간 전 온	가 격 (원)
업 체 명	규 격	양 자	름 이	간	온		
(주)로케트전기	(R6AAM)	0	0	0	0	A A A	120
(주) 서 통	(R6AAM)	0	0	0	0	A A A	120
도시바 (일본)	(R6AAM)	0	0	0	0	A A A	120
바이닉 (홍콩)	(R6AAM)	0	0	0	0	A A B	120
비 고		O: 적합한 것 X: 부적합한 것				A: 우수한 것 B: 보통인 것 C: 미흡한 것	

이 KS 기준인 90분보다 훨씬 양호한 3백 20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건전지에 변형이 생기거나 전해액이 외부로 흘러 나오지 않아야 한다. 누액이 나오면 사용 제품에 녹이 나게 하는 등 손상을 준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KS 기준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온의 내누액성 시험에서는 홍콩 제품인 바이닉 제품이 50일간 방치한 후에는 누액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제품은 이상이 없었다. 소

■ 사용 및 보관할 때는 ...

사용한 건전지는 신속히 제거한다



-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시켜서는 안 된다.
- (+), (-)를 바르게 삽입해야 한다.
- 건전지를 가열하거나 불에 놓아서는 안 된다.
- 건전지를 분해할 경우, 손가락을 다치거나 건전지 내부의 약품이 비산되어 눈을 다치거나 피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 건전지를 기기에 넣기 전에 마른 헝겊으로 기기와 건전지의 단자부를 닦으면 좋다.
- 사용한 건전지는 누액이 생기거나 부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제거한다.
-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며, 온도 상승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

여행용 가방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2~4배 비싸

휴대하기 간편한 여행용 가방은 해외 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공업진흥청이 89년 12월 국내외 12개사 제품의 여행용 가방을 비교·시험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가격면에서 2~4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수입품을 포함해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12개 제품의 품질을 비교·시험했다.

시험 결과 국산품인 스카이웨이 제품은 외국 제품과 품질이 비슷했고, 다른 국산 제품도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나쁜 품질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격은 외국 제품이 국산품보다 무려 2~4배 정도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사 용과 휴대의 편리함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에게 필수품이 된 여행용 가방.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수트 케이스' '서류 가방' 등으로 불리는데, 해외 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행용 가방 생산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만·미국 등 외국 제품이

‘스카이웨이’ 제품은 겉모양이 양호, ‘상록수제포상사’ 제품은 잠금 장치 작동 불량

가방의 겉모양 및 끝손질 상태를 살펴본 결과, 외국 제품과 국산품인 스카이웨이 제품은 양호했으나 그 외 제품은 미세한 흠이 발견되어 끝손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행용 가방 종합 평가표

(자료 : 공업진흥청)

상 표 명		시험 항목	결 모 양	성						능			가 격 (원)
				작 동 성 능	부 착 강 도	내 열 성	내 식 성	낙 하 시 험	충 격 시 험	마찰 견뢰도		퇴색 성 시험	
										건	습		
국 제 여 행 구 사	우 주	B	O	O	O	A	O	O	A	A	A	37,000	
대 광 양 행	로 렉 스	B	O	O	O	B	O	O	A	A	A	37,000	
리 갈 공 업 사	리 갈	B	O	O	O	A	O	O	A	A	A	35,000	
상 록 수 제 포 상 사	마 스 터 스	B	X	O	O	A	O	O	A	A	A	35,000	
쓰 리 쎬 본 제 포 사	카 지 바	B	O	O	O	B	O	O	A	A	A	37,000	
스 카 이 웨 이	하 이 웨 이	A	O	O	O	A	O	O	A	A	A	37,000	
전 승 사	J. S. S	B	O	O	X	A	O	O	A	A	A	26,000	
(주) 크 로 바 가 방	크 로 바	B	O	O	O	B	O	O	A	A	A	33,000	
츄 피 온	비 바	B	O	O	O	A	O	O	A	A	A	33,000	
델 시 (프랑스)	델 시	A	O	O	O	A	O	O	A	A	A	138,600	
에 코 락 (대만)	에 코 락	A	O	O	O	A	O	O	A	B	A	74,800	
삼 손 나이트 (미국)	삼 손 나이트	A	O	O	O	A	O	O	A	A	A	139,400	
비 고		A : 우수한 것 B : 보통인 것 C : 미흡한 것 O : 기준에 적합한 것 X : 기준에 미달되는 것											

프레임 또는 고정 쇠걸고리가 매끄럽지 못한 제품은 리갈공업사, 쓰리쎬본제포사, 츄피온, 대광양행, 국제여행구사, (주)크로바가방, 전승사 등 국내 7개사 제품이였다.

또한 상록수제포상사 제품은 상표가 붙은 상판이 들떴고, 전승사 제품은 모서리 부분과 가방의 원단 판과 프레임이 밀착되지 않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방을 오래 사용할 때 잠그는 장치 등이 이상없이 작동되는가를 알아본 시험에서는 상록수제포상사 제품만이 작동 불량이었고, 그 외 제품은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가방 손잡이 및 기타 부속품도 전제품이 탈락됨 염려없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었다.

가방은 어느 정도 열에도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가방의 변형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승사 제품만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제품은 이상이 없었다.

가방에 사용된 부속품은 도금이나 피막 처리된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도금이나 피막 처리가 잘 안 된 제품은 쉽게 녹이 슬어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접촉되는 물체에 묻기도 한다. 내식성

을 시험한 결과 쓰리쎬본제포사, 대광양행, (주)크로바가방 등 3개사 제품이 손잡이 고리 부분이 부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품이 일광 견뢰도 양호, 대만제 '에코락' 제품은 마찰 견뢰도 미흡

가방은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충격에도 어느 정도 견뎌야 한다. 가방에 충격을 주었을 때 변형·파손 등 이상이 있는지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가방 원단(ABS수지)판은 안료로 착색되어 있으므로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변색될 수 있다. 각 제품의 일광 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가방 내부에 부착된 직물은 염색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섬유에 마찰되었을 때도 잘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각 제품의 마찰 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대만 제품인 에코락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마찰 견뢰도가 약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비판적인 여성이 유행을 따른다

외 모를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사자의 갈기, 얼룩말의 줄무늬, 조개 껍질의 형상 등의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어 색상을 얻어내고 무늬를 프린트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끊임없이 외모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개성적 창조물인 의복이 대중심리와 결합해 유행을 창출

인간이 신체를 장식하고, 변형시키며,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부터 예술의 기초는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행은 인간이 창출한 가장 오래 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남의 매력을 예사로 보아넘기지 않는다. 우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감추어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질투심으로 하여금 매력있는 대상과 동일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는 다른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본능은 자기 과시를 통하여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자기 방어적인 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 확장의 과시 욕구와 동일시, 또는 남과 같이 동조하려는 욕구의 배반적인 두 요소가 자극되어 모방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유행은 성립되는 것이다.

어떠한 유행이 생성되면 개성의 무시와 과장이 나타나게 되어 그 유행을 확대시키고, 그에 따른 비판과 함께 새로운 시도의 이행으로, 다른 유행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의복은 선과 색과 형태를 통한 개성적 창조물이며,
유행은



사람은 남의 매력을 예사로 보아넘기지 않는다. 우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감추어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질투심으로 매력있는 대상과 동일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시와 동일시 욕구에 의해 유행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선재<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그것이 대중심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남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로 시도된 새로운 스타일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추종할 때 유행은 성립되는 것이다.

유행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선두에 설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것이 더욱 개성적이기 위해서는 잡지나 매스컴을 통해 나온 의상들에 관심을 쏟는다. 아울러 백화점이나 의상실의 진열장을 열심히 기웃거리며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독특한 콤비네이션을 통하여 개성적으로 보이게끔 노력한다.

탁월한 개성은 가끔 독특한 매너로 옷을 입음으로써 유행을 창조하기도 한다. 실제로 윈저공, 재클린 오나시스, 다이아나 황태자비, 또는 연예계의 패션 선구자들은 즉석에서 새로운 룩(New Look)을 창출해 내기도 했다.

'90년대 초엔 고전적인 스타일과 함께 곡선 장식과 식물무늬가 도입될 전망

일반적으로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성격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허영심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자기의 신념이나 태도에 일관성이 부족한 편이라고도 한다.

개성이 강해 독특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사교적이고 객관적인 반면, 비판적 태도가 약한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유행에 관심이 많고, 감정적이며 무비판적인 여성층이 현실적인 남성들보다 유행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유행에 관심이 높고, 경제적으로는 중상 계층에서 가장 유행에 관심이 많았다는 조사 보고가 나와 있다.

의복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식 중에서 감각을 형태로 표현하는 최초의 것이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이다. 또한 그 사회의 정치 경제적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한다.

지난 '80년대는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공존했는데 대체로 어깨 패드를 넣어 남성다운 강한 표현의 여성복이 유행의 주종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좀더 여성스럽고 고전적인 스타일이 유행될 것이다.

반면에 지구의 공해 문제에 대한 반동으로 생명체나 자연물을 숭상하는 정신도 패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곡선 장식이나 식물의 무늬 등을 패션에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90년대 말과 2천년대 초에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강한 힘이 패션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



집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

영구 임대아파트가 훌륭한 주택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들의 삶에 맞는 그릇이라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입주자들이 그 그릇에다 삶을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날 우리의 주택 정책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염돈민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택이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은 각자의 삶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각양각색의 질과 크기와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은 이러한 그릇을 좀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삶의 정도에 알맞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소득이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더 좋은 그릇으로 바꾸어 나간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삶의 그릇이 깨어졌거나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바꾸어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을 주택정책 쪽에서 보면 주택난 가구 또는 정책 대상 계층이 되며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구성된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부분 주택에 만족

정부는 주택사정이 곤란하고 또 스스로 개선의 여력이 없는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하고 있다. 이 집은 1992년까지 4년 동안에 총 25만 호를 서울 등 6대 도시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건설 자금은 전액 재정 자금으로 충당하고 사업 주체는 지방자치

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된다. 그리고 입주 대상은 객관적으로 저소득층임이 확인 가능한, 현재로써는 유일하다고 생각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가 1차적인 입주 자격 계층이다.

이들은 매년 보건사회부에 의하여 조사, 책정되는데 월 소득이 가구원 1인당 5만원 내외, 그리고 총 자산 규모가 3백4십만원의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5백4십만원의 의료부조자 이내인 가구로써 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적은 수입에 가족이 많아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2평~6평 정도의 집에 단칸방으로 살고 있으며, 매월 100만원 내지 300만원의 보증금에 5만원 내지 10만원의 월세(서울의 경우)를 지불한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입주한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서울시의 중계동 영구 임대아파트단지로서 640가구가 작년 말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 이 단지의 아파트는 모두 13평 정도의 분양 면적에 방 2개, 온수와 도시가스 시설이 갖춰진 중앙난방의 5층짜리이다.

얼마전 입주자들을 상대로 생활 실태를 면접 조사한 바 있다.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주택에 대하여 대단한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아울러 집을 지어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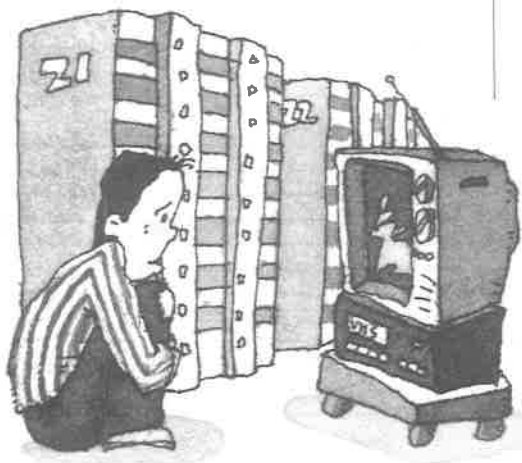
관계 당국과 정부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연탄으로부터의 해방, 넓은 주거 면적, 독자적인 화장실 공간, 그리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시설은 가히 이들이 예전의 생활에 비하여 '천국'이라고 일컬을 만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편리해진 아파트생활로 가득이나 하는 일이 불안정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들은 주어진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돈과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아서, 소주와 막걸리가 인근 지역중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다는 단지 내 상점 주인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사온 이후 월부로 비디오를 구입한 집이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도 여가 시간과의 함수관계를 말해주고 있었다.

옷을 몸에 맞추어 입듯 생활도 집이라는 그릇에 맞춰 살아야

이 지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생활 수준의 차이에 따른 이웃과의 문제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층아파트 주민들로 모두 소비 수준이 높았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의 소비 수준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소비 수준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사오면서 대형냉장고, 전자동 세탁기와 함께 새 장농을 들여놓는 것은 예사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친지들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는 월부로, 아니면 예전의 전세금 중 입주금(보증금 17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구입하는 예도 적지 않다.

도와 줄 수 있는 친지도 없고 남은 전세금마저 없어서 새 살림을 장만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웃 주민들에게 입주해서는 안될 상대적 부유층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웃 관계는 지극히 폐쇄적이다. 이사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이웃에 누가 사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 예전에 살던 지역에서는 방문만 열어도 이웃과 마주치는 개방적 삶을 살던 이들도, 폐쇄적인 아파트 공간에서는 폐쇄적 삶을 살고 있다. 이웃의 밥 굶는 노인에게 한 끼 식사를 지어 주던 훈훈한 인정을 잃어가고 있었다.

농촌에서 서울로 온 촌사람이 빨리 '촌놈'의 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듯이, 이들도 빨리 '영세민'에서 세련된 '아파트' 주민이 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삶이 그릇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기대가 안타깝다. 우리는 옷에 몸을 맞추려고 하면 바보라 하면서도, 집 문제에 있어서 만든 집마다 생활을 맞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집은 삶을 담은 그릇이다. 영구 임대아파트가 입주자들이 좋아하는 만큼 훌륭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 그들의 삶에 맞는 그릇이라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나아진 그릇에다 그들 대로의 삶을 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날, 우리의 주택 정책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